

한결같은교회는 수도원 영성으로 수도목회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제6권23호
통250호

주후 2018년 6월 10일
창립 2013년 9월 1일

예배 안내

| | | | |
|------|----------|-------|-------|
| 주일예배 | 오전10시15분 | 토요일예배 | 오전10시 |
|------|----------|-------|-------|

2018년 표어 : 여호와께 성결(聖潔)(출28:36)

교회위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엡6:24)

변일국 목사

스마트폰 설교듣기

- ① 앱 **DS audio** 설치
- ② 주소: **bygrace** 계정: **cbc** 후 로그인 (※ 패스워드는 없음)
- ③ 메뉴(좌측상단) - 라이브러리 - 폴더 - **한결같은교회**

34006 대전 유성구 와룡로136번길 75 (봉산휴먼시아) 208동 404호
010-3412-9201, bygrace.byun@gmail.com, bygrace.kr

주일예배

오전10시15분

| | | |
|------|------------------------|--------|
| 예배부름 | 행4:19-21 | 인도자 |
| 찬양 | 찬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함께 |
| 기도 | | 권영희 사모 |
| 본문 | 행4:13-22 | 인도자 |
| 특별찬양 | 찬259,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 목회자 가정 |
| 설교 |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듣고 말하기' | 변일국 목사 |
| 찬양 | 찬324, '예수 나를 오라 하네' | 다함께 |
| 봉헌 | | 변준석 형제 |
| 광고 | | 인도자 |
| 축도 | | 변일국 목사 |

한결같은교회 기도제목

성결(聖潔)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힘쓰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현존(現存), 성무일과(聖務日課)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QT본문, 기도제목

| 날짜 | 찬송 | 본문 | 기도제목 |
|---------|------|----------|---------|
| 11일(D2) | 찬213 | 행4:23-37 | 독서 |
| 12일(D3) | 찬251 | 행5:1-11 | 성무일과 |
| 13일(D4) | 찬445 | 행5:12-26 | 수도원교회 |
| 14일(D5) | 찬440 | 행5:27-42 | 수도학교 |
| 15일(D6) | 찬331 | 행6:1-7 | 지방회 |
| 16일(D7) | 찬411 | 행6:8-15 | 혈연, 이웃 |
| 17일(D1) | 찬15 | 행7:1-16 | 후원의 손길들 |

광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수도원 개원예배** 오늘 오후 4시, 충주봉쇄수도원 개원예배가 충주봉쇄수도원에서 있어 다녀옵니다.
2. **4014 사역 종료** 지난 6일(수)부로 지난 1년간 섬긴 4014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3. **6.13 지방선거** 오는 13일(수)은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모두 참여하여 이중국적자(천국과 이 세상)인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합시다.

목회칼럼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

요즘은 복수(複數)국적이라 하지요. 국적이 둘인 사람,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용어입니다. 부모의 국적이 다르거나 속지주의(屬地主義) 국가 출생 등의 사유로 이중국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땅, 이 세상에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이 땅, 이 세상에서 태어났으므로 세상에 속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천국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이중국적자들처럼 우리 역시 두 나라의 법, 권리와 책임 등을 동시에 요구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책임이 바로 세상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 투표참여입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세상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누구를 세우시는 분은 결국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지 않고 세상나라의 선거제도를 통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선거참여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요. 6월 13일 지방선거의 날, 꼭 투표합시다. 할렐루야!